

“알송달송 선거법”

‘난감’ 한 후보들, ‘단호’ 한 선관위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소한 알송달송 헛갈리는 선거법 규정으로 인한 후보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상대후보에 대한 혐의경 감시로 인한 고발과 제보 등 신경전도 과열 조짐이다.

1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30건에 이른다. 이 중 사안이 무거운 9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20건은 경고 처분됐다. 인쇄물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5건, 공무원 선거 개입 5건, 기부행위 3건 등이다. 4년 전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너러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구청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9일 오후 선관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길거리 홍보 때 피켓에 폭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풍이나 표찰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녀야 한다’는 공식선거법 68조 규정 위반 여부

피켓 목줄 없으면 위법, 병원 로비 OK·병실 NO
선거사무원 명함 배부·강연 중 커피 쿠폰 ‘뒤탈’
까다로운 규정에 역발상 창의적 아이디어 내기도

가 논란이 됐다.

피켓은 ‘복에 걸면 합법, 땅에 두면 불법’이다. 화장실에 갈 경우 땅에 뒤집어 놓아두거나 다른 동료에게 맡겨야 한다. 땅에 내려놓는 순간, 현행법 위반이다. 그러나 대개는 두 손으로만 들고, 악수를 하거나 팔이 아파 종종 땅에 내려 놓기 일쑤다.

지방의원에 출마한 B예비후보는 직계 준비속이 아닌 선거사무장이 후보와 동떨어진 곳에서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상 명함 배부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의 아버지나 아들, 손자만 배부할 수 있고 직계 준비속이 아닌 경우는 후보자와 동행했을 때만 배부가 허용된다. 배우자 없

는 후보를 위한 배려다.

또 명함에 화려하고 경력을 기록할 경우 국내·외 막론하고 정규학력을 기재해야 하고 중퇴시 수 학기간, 예를 들면 ‘00대 4년 중퇴’ 식으로 적어야 한다. 이를 어 기면 허위사실 공표로 갈린다.

공무원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끝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글이나 사진을 ‘퍼 나르기’ 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D후보는 강연 도중 분위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쿠폰을 맞춘 정중 어에 커피쿠폰을 제공했다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관내에 병원에 많아 병원에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비는 괜찮고, 병실은 호별방문으로 단속대상이라는 말에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규정을 역이용하는 창의적 후보도 있다.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의원(윤암 1·2·3, 동립) 후보인 양일옥 예비후보는 아예 이크릴 재질의 커다란 동그라미 피켓을 제작한 뒤 백팩에 부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간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피켓으로 변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양 후보는 “뒤야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양한 연구 끝에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는 후보들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고성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법인 만큼 단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후보 캠프에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키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경선에 나섰던 송형곤 전 도의원, 장세선 전 군의원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흥연락사무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민 후보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장세선 전 군의회의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송형곤 전 도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고흥군수 경쟁후보들 ‘공영민 예비후보 지지 선언’

공동기자회견 열고 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경선에 나섰던 공영민 예비후보를 비롯한 송형곤 전 도의원과 장세선 전 군의원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흥연락사무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민 후보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이들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의 서운함을 접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입성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에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 하였지만, 언제나 같은 길로 가는 동지들이다”면서 “이제는 서로 상처를 보듬어 안고 고흥

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후보는 “함께 경쟁한 두 후보가 가졌던 고흥군민에 대한 애정과 고흥 발전을 위한 열망을 높이 받들고 더 큰 고흥을 만들겠다”면서 “두 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6.1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공영민 민주당 고흥군수 후보 진영은 경선후보들이 대부분 합류해 단결된 분위기로 본선을 치르게 됐다.

한편, 장세선 전 군의회의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송형곤 전 도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신봉우 기자



우원식, 김성태 병문안 “싸우더라도 건강 회복해야”

“싸움을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해야지.” “니가 (단식 그만하게) 해주어야 할 거 아니야. 니가 마무리해 주고 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화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1시40분께 노숙 단식농성 8일차에 호흡곤란과 심장통증 등 이상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된 김 원내대표를 병문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병원 측에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진단에도 ‘수액을 맞는 것은 사실상 단식을 중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

을 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병실 안에서 우 원내대표를 맞으며 “농성장에) 또 갈 거다”라고 말하자 우 원내대표는 “수액 맞고 (단식) 그만해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지 않나”라고 회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힘들어 죽겠다 (합의) 좀 해주고가”라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그럴 수 없게 됐잖나. 여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특검 수사법위를)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진짜’ 순천 시민들과 만들어 갈 것”

손훈모 무소속 순천시시장 예비후보 순천시시장 공식 출마

손훈모 무소속 순천시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시장에 공식 출마했다.

손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은 민주 1등 도시다”면서 “진보부터 보수까지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고 최근에는 연이어 무소속 시장을 당선시켰다”고 말했다.

손 예비후보는 이어 “순천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은 4년 전 비약 사건, 이번에는 대치보 사건으로 민심을 조작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만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윤문과 비통함을 느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에 폐해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고 자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과감히 무소속으로 여러



분 앞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손 예비후보는 이어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진짜 순천 선언’문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시대 정치인들과 거기에 조종당하는 거대정당의 후보는 순천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주권이 우선시되고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며 상생과 화합을 통해 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진짜 순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끝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도시, 지역경제가 활력이 도는 도시,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신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민주광주시의원 女장애인-청년 비례대표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에 최영환(34)씨가 확정됐다. 여성장애인 비례대표는 경합 끝에 라현(55)씨로 결정됐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9일 치러진 시민선거인단 ARS투표에서 최 후보가 62.65%를 획득해 37.35%를 기록한 차승재(41) 후보를 누르고 청년비례대표 공천자로 확정됐다.

라 후보는 오선희 후보와의 상무위원 투표에서 14대 14 동률을 기록해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로 결정됐다. 특히, 장애인 전국체전에 광주시 테니스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 대표에 최영환(34·오른쪽)씨가 확정됐고, 여성장애인 비례대표는 경합 끝에 라현(55)씨로 결정됐다.

로 출전해 6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체육인이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